"시장 나와라"… 시청 현관 '와장창'

광주 反 FTA 시위 현장, 돌멩이·죽봉 난무 무법천지

경찰, 연행자 전원 구속 방침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 시·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가 광주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청공무원 등 40여 명이 다쳤고 시 청사 입구 대형 유리창 340여 장(8천400만원 상당)이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 등으로 인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고속도로 점거=전남 지역에서 버스 225대와 승용·화물차 등을 이용해 광주로 올라온 농민 9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호남고속도로 동립 IC와 서광주 IC 앞 1㎞ 지점에 집결했다. 이들은 20여 분 뒤 타고온 버스에서 내려 호남고속도로 상·하생선 각각 1개 차선을 막고 집회장소인 광주시청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이들은 이어 '빛고을로'로 진입, 광주 시청 앞까지 약 2시간에 걸쳐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인근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다.

◇충돌 =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농민 9천여 명과 노동자, 대학생,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만2천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께 광주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이 무산되자 죽봉과 각목 등으로 무장한 100여 명의 시위대가 2개 팀으로 나뉘어 시청 행정동과 의회동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이어 청사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경찰을 끌어냈다.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 등을 빼앗아 불로 태우기도 했다. 시위대는 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 깡통을 투척하기도 했다. 경찰은 물대포·소화기·전자충격기까지 동원, 진입을 막았다.

◇처참한 시청사 =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와 죽창으로 청사 1층 현관유리(가로 1.5m×세로 3m)와 3층 시장실 유리창 등 340여 장이 깨졌다.

충돌이 격렬했던 1층 시청 당직실 안에 있던 책상·온수기·TV·열쇠보관함·자판기 등도 심하게 부숴졌다. 시청 내 일부 LAN 시스템도 오작동 됐다. 시청은 이날 입은 재산피해가 ▲유리창 8천400만원 ▲보안키 시스템 8천만원 ▲출입문틀 3천만원 ▲보도블록 1억2천600만원 ▲산업전시관 3천만원 등 모두 3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수사 = 경찰은 이날 시위대 12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 구속하고, 채증 촬영을 통해 드러난 적극 가담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후 노동자·농민들의 항의시위 등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 시·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과 노동자·대학생 등 수백 명이 22일 오후 5시30분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죽봉으로 무장한채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진압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 처남 또 사기행각…기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4)씨가 사기 행각이 적발돼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2일 동업자로부터 사업인수 관련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1월 한·일 월드컵 휘장사업 동업자이자 모 대기업의 주유소 사업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최모씨에게 "해당 대기업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조카인 김홍걸씨가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대여해 달라. 이희호 여사가 입국하는 대로 갚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와 수도권매립공사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를 우려한 S사측의 로비자금 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2004년 9월 기소했다.

/연합뉴스

제이유 돈 받아 11억 차익 총경 영장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2일 그룹 관계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정모(43)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경은 이 그룹 계열사 사장이자 주수도(50) 회장의 최측근인 한모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1억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5천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경은 지난해 9월 빌린 2억으로 이 그룹 관련 주식을 집중매입해 3개월 만에 11억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총경 외 치안감급 경찰간부에게 제이유 그룹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도 회장은 다단계 영업상의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자금 2천억원을 조성해 이 중 100억여원을 수사기관과 정·관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의혹을 사왔다.

/연합뉴스

22일 새벽 광주 남초등학교 화재

22일 새벽 4시14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광주 남초등학교 1층 출입구 주변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출입구 근처에 있던 변압기와 냉장고 등이 타고 주변 벽이 그을리는 등 1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전판 등이 불에 탄 점 등으로 미루어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석방 조건 '모종의 거래' 있었나

피랍 공씨 얼굴·다리 등에 폭행당한 흔적

경찰, 청부폭력에 무게… 차량 90대 조사

광주 N건설의 사주 공모(47)씨 납치 사건〈본보 22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피해자인 공씨가 잠적,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22일 공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공씨가 연락을 두절하는 바람에 추가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오인 납치"라고 말했던 공씨의 전날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폭력 사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이번 납치 사건이 수도권 아파트 등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쟁·협력업체와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씨가 소유주로 있는 N·E 건설과 수도권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납치 후 여섯 시간 끌려다니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씨 개인 및 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씨가 ▲인대가 손상된 듯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었으며 ▲얼굴과 턱에도 상처를 입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으로 미루어 석방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이권 제공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씨가 풀려난 뒤 바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경찰의 끈질긴 요구가 있은 뒤에야 조사에 응했으며, 타업체와의 알력설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씨는 21일 밤 9시께 증심사 인근 식당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납치범들이 '납치 대상을 잘못 알고 납치했다'고 말했으며 폭행이나 억압은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공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고속도로 CCTV를 분석, 사건 당일 오후 광주를 빠져나간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기 19XX' '경기 XX83' 검은색 포텐샤 2대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판단, 번호 및 색깔이 일치하는 차량 90여 대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을 둘러싸고 건설회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는 일이 많다"며 "공씨 납치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가수 비 '미공개 곡' 인터넷 유출 수사

쌍나팔

○…서울 강남경찰은 22일 가수 비(본명 정지훈·24·사진)와 미국 팝스타 오마리 온(Omarion·22)의 미공개 듀엣곡 음원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

○…경찰은 "누군가 비와 오마리온이 함께 제작해 발매할 예정인 노래 '맨 업'(Man Up) 음원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원을 올린 사람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추적하겠다고 설명.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21일 "16일부터 해외 블로그 비의 팬 사이트에 '맨 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 되기 시작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연합뉴스